

## 그리스도교의 금교하에 일어난 ‘신자 발견’

1864년 12월, 나가사키를 찾은 선교사들은 오우라의 나가사키 만에 면한 외국인 거류지에 천주당을 세웠다. 건물의 정식 명칭은 ‘일본 26 성인 순교자 성당’으로, 순교지 방향으로 지어졌다. 아직 일본인에 대한 선교가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거류지에 사는 서양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돌아온 가장 큰 목적은 나가사키에 남아 있는 잠복 기리시탄을 찾는 것이었다.

1865년 3월 17일, 15명의 우라카미 기리시탄들이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와 프티잔 신부에게 신앙을 고백했다. 신부가 기리시탄과 만난 다음날에 쓴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무리 중 한 여인이 신부의 곁으로 다가와 ‘우리 마음, 당신 마음과 같다’고 말하며 ‘산타 마리아 상은 어디에’라고 물었다. 당시에는 2세기 반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금교기였다. 그러나 이 ‘신도 발견’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탄압으로 인해 일본에는 신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유럽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신도 발견’이 있던 날로부터 나가사키 각지의 기리시탄 취락에서 지도자가 잇따라 오우라 천주당을 방문했고,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각지의 취락으로 전달했다. 일본 가톨릭의 조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